국내
마감시황

2025. 11. 11.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증시 변동성 높아지며 혼조 마감

트럼프 관세 위법성 관련 불확실성 부각

달러 수요 증가세에 달러/원 환율 1,465원까지 상승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4,106.39pt (+0.81%)	884.27pt (-0.46%)	581.41pt (+1.06%)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65.00 원 (+8.2 원)	3.2010% (-2.9bp)	6,853.00pt (-0.05%)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830 억	+770 억	-435 억
외국인	+751 억	+129 억	-3,436 억
기관	+2,240 억	-822 억	+3,323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을 반영하며 美 증시가 전일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8%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을 축소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 등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관세 위법성 판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 수급 이탈, 달러 수요 증가 등 원화 약세 요인이 지속되면서 1,46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날 KOSPI는 0.81% 올랐고, KOSDAQ은 0.46%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9.9조원, KOSDAQ 거래대금은 10.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 외국인은 KOSPI에서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멈추고 소폭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IT 서비스와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를 이틀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 장비/부품과 화학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일 美 반도체주가 반등한 가운데, 한국 11월 1~10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NAVER, 카카오가 국내 시중 은행과 협력하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IT S/W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성장 전망에 두산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유럽 시장 무기 수주 경쟁 심화에 방산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맥스와 씨앤씨인터내셔널 실적 실망감으로 화장품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 외 조선, 엔터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두산(+7.99%), 카카오(+2.89%), 삼성전자(+2.88%)가 올랐고, 코스맥스(-17.84%), 하이브(-6.55%), 현대로템(-5.43%)이 내렸습니다.

Samsung Securities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